

어떻게 하면

더 빠르게 경로를 찾을 수 있을까?

더 다양한 경로를 찾을 수 있을까?

여러 경유지를 거치는 경로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까?

경유지에 머무르는 시간을 참고하여 경로를 찾을 수 있을까?

-현재 나온 지도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경유지에 들리는 것만 고려한다. 경유지에 머무르는 시간도 포함시키면 좋겠다.

현지 교통상황이 반영된 결과를 잘 알 수 있을까?

-네이게이션에는 현지 교통이 반영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단순한 길 찾기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. 길찾기에서도 교통상황이 반영된 최저경로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.

현지 사건이 반영된 경로를 볼 수 있을까?

-코로나 실시간 방역과 같이 실시간으로 길이 폐쇄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면 좋겠다.

장거리 경로 탐색 시 현지 날씨가 반영된 경로를 볼 수 있을까?

-지역마다 날씨가 다를 수 있다. 태풍, 우박, 폭설 등 영향이 큰 날씨는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를 반영하여 더 나은 경로를 보여주면 좋겠다.

길 포장상태가 안내된 경로를 볼 수 있을까?

-도로나 자전거는 길 포장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이 포장상태를 고려하여 더 나은 경로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?

일상의 소소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경로를 볼 수는 없을까?

-통근길같은 매번 같은 경로만 다니는 것에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다. 색다른 경로를 제공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?

건물 내부나 지하철이나 기차를 이용할 때 역 내부의 자세한 경로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.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볼 수는 없을까?

-급할 때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. 하지만 건물 내부나 역 내부는 일직선 거리로 표시되어 길을 헤메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. 이를 개선하여 정밀한 경로를 제공하면 좋겠다.

고층과 저층간의 이동시에 요약되는 경로를 전체경로에 자세하게 반영된 결과를 볼 수 있을까? (장애인 및 노약자들을 위한 이동경로에 부분 포함)

-위의 사건과 비슷하다. 고층과 저층 간 이동시 요약되는 경로 때문에 길을 헤멜 수도 있고 장애인 및 노약자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이를 개선하면 좋겠다.

특정 계층(장애인 및 노약자)들이 더 나은 경로를 탐색할 수 있을까?

-장애인 및 노약자는 이용할 수 없는 경로를 안내할 가능성이 많다. 특정 계층을 위한 옵션을 만들어 더 나은 경로를 안내하면 좋겠다.